

여름의 시작 알리는 ‘무안연꽃축제’, 26일 화려한 개막

초록빛 연잎 아래 펼쳐지는 여름 낭만… 체험·공연·야경으로 가득한 4일간의 축제

단일 연꽃 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28회 무안연꽃축제’가 26일 무안 화산 백련지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라는 주제로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기획,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여름 낭만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날 개막식은 초록빛 연잎이 가득한 백련지가 내려다보이는 주무대에서 김순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꽃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무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이어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열린 개막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박지현, 예능, 최유나 등이 무대에 올라 열띤 공연을 펼쳤으며, 화려한 불꽃쇼가 개막일을 장식하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개막 첫날 약 4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축제장에는 진주 유등 축제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태권V, 아이언맨, 뽀로로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향수를 자극하는 20여 종의 ‘유등 캐릭터 존’이 마련돼 환상적인 여름밤을 수놓고 있다. 또한, ▲연차시음 및 행다 시연 ▲연꽃



축육 체험 ▲신비의 연꽃 보트 탐사 ▲백련지 황토맨발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장에서 문화·체험·판매를 즐기고 이벤트를 통해 일로읍 카페 투어 합인권(20%)을 받아 일로읍 중심 상가에서 소비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인 ‘백련마실’도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전남 최초 치유농업센터 준공 치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가속화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전남 최초의 치유농업센터 준공식을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곡성치유협동조합,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27일 전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치유농업센터는 총 630㎡ 규모로 유리온실 230㎡, 치유타밭 400㎡로 조성하였으며, 유리온실 내부에 치유

쉼터와 교육장 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치유농업센터를 통해 치유농업사 등 치유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상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저점기 관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연남)는 “2년간 준비한 치유농업센터가 준공하는 만큼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월 26일(목)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화순군 주민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생활

2025년 화순군 주민 참여예산학교 운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소구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날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강사를 초빙해 주민 참여예산의 배경, 제도

의 개념 이해, 제안서 작성 방법,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김종환 기자

카메라 뉴스



나주소방서,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25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나주시 빗가람동 일대 공사장과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해 공사장 내 침수·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종춘 빗가람119안전센터장은 이날 한전 에너지공대와 광주·전남 복합혁신센터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배수시설 및 토사 유출 방지대책 ▲가설 구조물(비계, 가림막 등) 고정 상태 ▲전기설비 및 가연성 자재의 관리 상태 ▲지하공사장 차수판 설치 여부 ▲집수정 및 양수기 등 배수장비 작동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2025 마음을 잇는 행복한 일상’ 프로그램 추진

보성군은 지난 25일 별교읍 정광문화에서 고독사 위험군 12명을 대상으로 ‘2025 마음을 잇는 행복한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보성군은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 42가구를 발굴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안부 꾸러미 지원, ▲저장 강박 주거환경 개선,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자조 모임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영광군, ‘국민팍 엑스포’에서 귀농·귀촌 정책 적극 홍보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민팍 엑스포」에 참가해 영광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일보가 주최했으며, 전국 60여 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귀농·귀촌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했다. 영광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귀농 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귀농·귀촌 정책 안내, 지원 사업 소개, 성공적인 정착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